2008 연차대회자료집

| 일시 | 2008. 12. 4(목) 13:00~17:00
|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 후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봉사단
www.servekorea.org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811호
TEL:02-708-0119 FAX:02-708-4004
홈페이지 : www.servekorea.org

2008년 연차대회 자료집

한국교회봉사단

인 사 글

서해안의 자원봉사에서 지구촌의 위로자로!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은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난 직후 자원봉사로 시작하여 금년 1월 11일 연세대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서해안 살리기 일환으로 방제작업에 2,000여교회 170,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아동지원사업, 생태백서 제작사업, 생태사료전시관 건축사업과 생태 섬마을 만들기 사업등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일어난 미얀마 사이클론 재해구호에 급식제공사업과 주거공간을 지어주는 사역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역을 수행하였고, 중국 쓰촨성 지진구호에는 장애아동의 교육시설의 설립비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아상태의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북한동포에게도 소리소문없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상당량의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의 서울 논현동고시원 방화와 살해사건의 유가족과 부상자 등 희생자들에게 1억 3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장례식을 대신 치러드리고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한국교회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쁘게 지나온 지난 1년을 돌아보는 2008 연차대회를 통해 서해안의 아픔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봉사로 연합과 일치를 이룬 것을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한국교회의 서해안 살리기 생태백서 –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온 몸으로 뛰어다니며 집필해 주신 성백걸교수와 생생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안인철목사와 논찬을 맡아주신 송준인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연차대회 순서를 맡아주신 이종현감독, 정진경목사, 전광표사령관께와 그 외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원고를 써 주시고 발표를 해주시는 전현식교수와 손인웅목사와 박종삼회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사회적인 냉소 속에 다문화가정과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의 겨울나기를 돕기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에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장관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찬과 장소, 주차등 여러 편의를 제공해 주신 숭실대 이효계총장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의 모태가 된 서해안 피해주민들게 주님의 위로를 다시 전하며, 한국교회는 이후에도 작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재해와 아픔이 있는 지구촌의 어디라도 한국교회는 달려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보람과 성과물은 한국교회에 돌리면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와 지구촌 약자들의 희망이 되도록 머슴처럼 봉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봉사단 대표 **김 삼 환** 목사

단장 **오 정 현** 목사

차 례

| 인사글 | 김삼환 목사 ····· 3

| 순 서 | 연차대회 순서/예배순서/한국교회봉사단 정관 ····· 5

1부 : 김장김치 담그기와 나누기(12:00~14:00)

2부 : 연차대회(14:00~15:00)

3부 : 생태백서 발표 및 세미나(15:00~16:30)

| 생태백서 발표 및 세미나 |

1) 한국교회의 서해안 살리기 생태백서_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

| 발표 | 성백걸교수(백석대) ····· 9

| 논찬 | 송준인교수(총신대) ····· 11

2) 서해안 사태의 생태신학적 이해_ 생태적 회심과 창조세계의 회복

| 발제 | 전현식교수(연세대) ····· 23

3) 교회연합과 일치를 이룬 서해안 자원봉사_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자

| 논고 | 손인웅목사(덕수교회) ····· 41

4)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 논고 | 박종삼회장(월드비젼) ····· 48

| 소 개 | 한국교회봉사단 ····· 58

한국교회봉사단 2008 연차대회 순서

| 1부 | 한국교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나누기 (12:00~14:00)

-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앞 광장
- 외국이주민 다문화가정, 노숙인, 쪽방거주자, 장애인, 노인 등
  김장김치를 담아 제공합니다. 〈 자원봉사 : 강북제일교회 〉

| 2부 | 연차대회(14:00~15:00)

인도 : **오정현** 목사

개회찬양 ····· 숭실대 웨스트민스터합창단

인사말씀 ····· **김삼환 목사**(한국교회봉사단 대표)

찬 송 ····· 94장(새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 다 같 이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자의 위로와 없는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되고 우리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영광 되시네

기 도 ····· **이종현 감독**(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장)

찬 양 ····· 장로교은퇴목사성가대

성경봉독 ····· **막 10:45** ····· 인 도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설 교 ····· **섬기는 생활** ····· **정진경 목사**(기성 증경 총회장)

사업보고 ····· 동영상 시청

♣ **정관채택 및 임원 추대**

축　　가 ····· 명성교회 수화찬양단

인사와 알림 ····· 맡 은 이

축　　도 ····· 전광표사령관(구세군대한본영)

ㅣ3부ㅣ 생태백서 발표 및 세미나(15:00~16:30)

1) 한국교회의 서해안 살리기 생태백서 〈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 〉

발표_ 성백걸 교수(백석대)

논찬_ 송준인 교수(총신대)

2) 서해안 사태의 생태신학적 이해 〈 생태적 회심과 창조세계의 회복 〉

발제_ 전현식 교수(연세대)

3)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자

논고_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4)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논고_ 박종삼 회장(월드비젼)

한국교회봉사단 정관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한국교회는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을 긴급조직하여 방제활동을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섬기면서 하나되고 하나되어 섬기자'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의 봉사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회에서는 칭송을 받도록 하는데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우리 봉사단은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평화를, 한국교회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효율적으로 사역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과 사무소) ① 본 회는 한국교회봉사단(이하 본 회라 칭함)라고 한다.
② 영문명칭은 KOREAN CHURCH DIAKONIA SERVICE(KCDS)라고 한다.
③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업) 한국교회봉사단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모든 사회봉사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한국교회봉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단, 단체, 개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실행위원회와 임원회가 승인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 정관과 각종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의 납부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한국교회봉사단에는 대표회장과 단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실행위원회) ①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을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실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각종위원회 등) ① 기획위원회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정책과 방향등의 기획조정업무 역할을 담당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한국교회봉사단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는 한국교계의 원로들을 고문에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위원이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각종 회의) 한국교회봉사단의 각종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1회 개회하여 한국교회봉사단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되 단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총회로 모일 수 있다.

② 임 원 회 : 대표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 : 대표회장이 실행위원장을 겸하며 대표회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의결정족수 :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처와 사무총장) ①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제11조(행정과 재정) ① 본회의 행정은 문서로 하며, 모든 사업은 일정한 행정의 단위와 단계를 거쳐 시행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찬조금, 기부금, 모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보칙) ①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결의로 개정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③ 이 정관에 정한 내용 중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면 임원회의 제청과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3조(발효)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 12. 4. 제정

발 표_한국교회의 서해안 살리기 생태백서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

성 백 걸 교수 (백석대)

논 찬_한국교회의 서해안 살리기 생태백서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

송 준 인 교수 (총신대, 청량교회 담임)

1.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 요약」

1) 들어가는 말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한 돌을 맞이하여 실제 교우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해 본 사람의 하나로 이번에 성백걸 교수가 쓴 생태백서 [서해의 눈물 서해의 희망-서해안 살리기와 한국교회]를 읽고 논찬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대한 생태백서를 쓰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필자에게 무한한 감사와 함께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필자의 생태백서가 방대한 분량이므로 요약을 해 드리는 것이 논찬자의 역할이라고 여겨져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본문이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 부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장 검은 재난 검은 눈물

제1장은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7시 6분 경에 발생한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과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인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여 선적하고 있던 원유 약 263,944톤 중 약 10,900톤이 유출되어 태안 앞바다와 서남해안 일대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사건의 정황을 "검은 재난,

검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필자는 그것이 예고된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부 당국의 초동 대응의 미진으로 바다 생태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제2장 달려온 행렬, 생명의 손길

제2장은 태안 앞바다의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주민들이 절망에 떨고 있을 때 시민환경단체들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자원봉사 현황을 "달려온 행렬, 생명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11개의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방제활동을 비롯한 제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청의 집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에서 다녀간 봉사자가 전체의 60%를 넘는다고 한 점을 밝히며, 한국교회가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단을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나 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대응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필자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4) 제3장~제8장 만리포부터 파도리까지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지교회와 연계해서 어떤 단체가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3장은 만리포와 모항 살리기, 제4장은 천리포와 백리포 살리기, 제5장은 의항과 십리포 살리기, 제6장은 구름포와 개목항 살리기, 제7장은 신두리와 학암포 살리기, 제8장은 모항과 파도리 살리기 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과 의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 필자가 여기저기 본문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의의를 논찬자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번의 재난을 통해 이 세상과 자연 속에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파괴할 때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비극적인 사고와 방제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해 생태적 회심을 요청하시고, 환경선교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창조신앙이 있음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 재난을 계기로 피조세계를 돌보아 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렵고 힘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연약한

피조세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됨으로 한국교회가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고대하며 출발한 2007년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세인들의 거친 비판에 직면하였고 기독교의 정체 현상을 거듭 확인한 자성과 눈물의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재난을 통해 나눔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새로운 분위기가 확산되어 세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재난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연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태안 사태를 통해 보수와 진보가 하나되어 한국교회봉사단에 참여함으로 이제 환경문제가 신앙의 본질적 문제임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원봉사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지만, 아직은 선한 일 자체로서만 접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화해 현장이라는 인식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자원봉사자의 의미 있는 목소리를 지적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목회와 신학이 생태학적 위기에 대안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 또한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5) 제9장 -한국교회봉사단의 출범과 활동

제9장은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의 출범과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태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봉사단이 어떻게 출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현장에는 11개의 교회 관련 현장 상황실이 차려지고 교단별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짐에 따라 그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전국교회가 하나되는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신촌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희망연대와 한국교회봉사단이 함께 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역사적인 한국교회봉사단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각 교회 봉사단,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 피해 어민들까지 약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되자!, 태안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표어 제창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재난의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중요한 몇 가지 선언문과 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 선언문"은 그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켜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경건과 절제로 생태적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한국교회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의 조속한 피해 보상과 유사한 사고 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고,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이제 한국교회는 모든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 자원봉사자 선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서해안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과 피해를 당한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주님을 섬기듯 섬길 것임을 다짐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과 선서는 앞으로 홍보 자료 등으로 잘 활용하고 한국교회 봉사단이 존재해야 하는 의의를 잘 설명해 주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또한 한국교회봉사단의 태안 봉사 열기를 언급하면서 '목회와 신학' 2008년 2월호에 나와 있는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교회 목회자 506명을 대상으로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봉사활동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문 또는 금전, 물품 지원 등을 통한 자원 봉사에 참여한 교회가 73.7%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 방문봉사를 한 교회가 52.6%에 달했다는 것을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교회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노력으로 모아 실어 놓은 이런 좋은 자료가 앞으로 한국교회봉사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에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 제9장 -부활절 연합예배와 한국교회 환경선언문

필자는 2008년 3월 23일(주일) 오전 5시 30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채택한 한국교회 환경선언문을 이 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금의 전지구적인 환경 위기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 무제한적인 경제개발과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깊이 물든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와 파괴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이 시대의 신앙 생활임을 고백하며 네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소개한 선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태적 회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둘째,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적인 영성 함양에 진력한다. 셋째,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운동에 동참한다. 넷째,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을 막아내는 환경 파수꾼이 된다. 이 네 가지 선언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생태정의와 생태영성을 고양함으로 창조질서 보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필자는 이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로 발족한 서해안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이 상설기구화 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7) 제9장 -서해안 살리기의 의미와 전망

필자는 한국교회 봉사단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서해안 살리기의 의미와 전망을 몇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교회 연합 봉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것과 환경 선교 내지는 생명 선교의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해안 살리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태안에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안군수가 한국교회봉사단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는 "태안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은 태안의 기적을 넘어 세계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봉사단이 있었습니다"라는 글귀를 필자가 인용함으로 한국교회봉사단의 활동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살리기는 한국교회가 생태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필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부 신학자들 중심으로 논의되던 생태신학이 목회자는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의미와 평가를 사무처장 김종생 목사의 글을 소개함으로써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봉사단의 의미와 평가 부분입니다. 김목사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의미로, 서해안 주민에게 한국교회가 이웃이 되었다는 점,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좋은 연합활동의 사례가 되었다는 점, 참여자 개인과 교회가 생태적 회심의 기회와 나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교회와 정부,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아동 지원 사업과 생태 전시관 및 교육관 건축사업, 생태마을 조성 사업, 아나바다 장터 상설화, 태안경제살리기 참여사업, 의료봉사 및 이미용봉사, 목회자 위기상담 웍샵 프로그램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8) 제10장 -서해에서 떠오른 희망-서해안 살리기 봉사후기와 생태신학적 의미

필자는 본문의 마지막 제10장에서 서해안 살리기 자원 봉사자들의 후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생생한 현장 체험에서 나온 후기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글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살리기의 생태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몇몇 목사들과 교수들의 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한일장신대의 임희모 교수의 "생명선교와 교회연합운동의 질적 도약-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의 활동의 의미"라는 글에서 임교수는 먼저 이번 재난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참여함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봉사단이 서해안 생명살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가진 이전의 이미지를 쇄신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봉사단의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생태계와 환경에 대하여 선교적 접근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장신대의 노영상 교수는 이번 재난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 문제 이면에 놓여 있는 경제적, 정치적 구조와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와 영성의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글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필자는 부록으로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 조직과 서해안 살리기 후원자와 교회와 단체, 그리고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 연혁을 실어놓아 생태백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 생태백서에 대한 평가

1) 공헌한 점

필자의 생태백서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의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서해안 살리기의 생태신학적 의미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한국교회의 참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찬자는 필자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몇 가지 공헌점을 먼저 기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필자의 생태백서는 재난의 시작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필자의 시각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고 봅니다. 검은 재난과 검은 눈물이 한국교회의 참여로 인해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필자의 시각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봅니다.

둘째, 원래 백서(white books)라는 것은 수십 년 전 영국에서 간단한 정부보고서는 겉 표지가 백색이어서 백서라고 했고, 좀더 자세한 보고서는 겉 표지가 청색이어서 청서(blue books)라고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필자의 이 책은 생태백서인데 사실 백서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논찬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생태백서라기보다는 생태청서라고 해야 옳을지도 모릅니다. 재난의 시작 순간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의 행렬, 100만을 넘어200만을 향해 끊임없이 이어진 그들의 손길이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일리포(구름포)까지 재난을 당한 지역을 총망라하여 닿은 내용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정성을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백서인 동시에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될 봉사와 섬김의 역사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네스는 기원후 125년 경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기독교의 전통 중에는 이처럼 훌륭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봉사와 섬김의 좋은 모범을 책으로 정리해 주신 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이번 재난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생태정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정의에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만, 생태 정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재난과 이 생태백서를 통해 이제 한국교회는 생태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문제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유욕,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욕망의 무한성과 지구자원의 물리적 한계 및 생태학적 한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깁슨 (William E Gibson)은 생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생태 정의는 번성하는 지구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는 지구, 모든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과 숨 쉬기에 적합한 공기와 계속해서 공급되는 숲이 있는 지구, 대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용도에 가장 오래도록 아껴 쓸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있는 지구여야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생태 정의이다… 인류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러나 생태 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와 결부되어 인간이 자연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번성하는 지구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Hessel, D T (ed) 1985. For Creation's sake, pp. 25-26]

생태 정의에 대한 깁슨의 정의에 의하면, 번성하는 지구 상에서 인류의 복지는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존에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의는 오는 세대들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번성하는 지구 상에서 충분한 자원을 공급 받기를 원하는 오는 세대들의 요구도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누려야 할 자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각 부분이 나름대로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며, 그것을 보살필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에는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의 지구 상에서 정의란 언제나 생태 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 정의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학적 통찰력이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인 사회 분석력도 고양되어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윤리적인 규범들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정의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아는 바를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외침 속에서 피조물의 위기를 간파할 수 있어야만 하며, 모든 피조물의 미래가 지구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정의를 실천하는 인간에게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2) 몇 가지 지적할 점

필자의 생태백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환경과 생태 문제, 더 나아가 생태 정의의 문제에 눈이 열려지기를 필자와 함께 기대해 봅니다. 필자의 생태백서가 많은 공헌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찬자의 역할은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논찬자로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백서라 함은 그 사전적인 정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꾸며서 발표하는 실정 보고서"입니다. 이 정의가 맞는다고 가정할 때, 필자의 생태백서는 사실 필자의 의도 만큼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나열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그 내용들을 열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좀더 분석하는 데 집중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짧은 시간에 생태백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짐작합니다만, 때로는 일지 형식으로 내용들을 나열하는 데 그친 관계로 내용의 중복, 서로 다른 자료의 사용으로 인한 정확한 정보의 혼돈과 오류 등이 눈에 띄는 것은 옥의 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 책으로 발간되기까지는 많은 수정과 교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둘째, 이번 서해안 재난과 거기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해석과 의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장마다 필자의 의도가 엿보이고 신학적 해석이 엿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논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여 따로 정리하는 것이 생태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찬자 자신이 이 글에서 필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정리해 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이 책의 백미는 역시 제9장의 '한국교회봉사단의 출범과 활동', 그리고 제10장의 '서해에서 떠오른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필자가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보다는 일간지에 게재된 다른 사람들의 글들과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 후기들을 인용하여 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글들을 수집하여 귀한 자료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이 필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나가는 말

1) 생태 정의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생태 정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망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는 무한한 물질적인 진보와 끊임 없이 늘어나는 소비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라는 규범, 즉 족하기는 하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원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유한한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도 세심한 절약으로 바뀌게 되고,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청지기직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연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보살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에 의거하여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적 존경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경쟁심과 소비주의는 협력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태 정의는 세계 역사 상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세대에 피조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필수적인 조망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조망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과 탐욕과 부주의함으로 이 지구와 이웃 사람들에게 끼친 악 영향을 인식하고 다시 겸손한 청지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성경적인 신앙에 뿌리 박힌 조망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과 위험들과 심판들과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현대 산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적인 소수의 안락과 방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편,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과 자원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과 비참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의 척도가 환경 위기를 맞고 있는 세상에 적합한 생활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세대에 생태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하기까지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만이라도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생활방식을 생태 정의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생태 정의적인 생활방식은 소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더불어 체계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담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과도함이 아닌 충족함으로 나아가는 생활방식입니다. 또한 그것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활방식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유발하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탈피해서 상호 협력하고 도와주는 태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체계와 사회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줄이게 되고,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일체감과, 더 많은 친밀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필자가 쓴 생태백서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보배가 될 좋은 사료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08년 10월 23일부터27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분석 결과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신교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8.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33.4%, 불신한다는 쪽은 48.3%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젊을수록

교회를 불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은 이어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는 물음에 대해 14.0%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50.8%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도 22.9%가 동의, 43.3%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신교회의 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38.0%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34.3%를 앞질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적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교인들과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깊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사람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별 신뢰도 문항에서는 비종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중 56.4%가 시민단체를, 11.5%가 언론을, 8.3%가 사법부를, 그리고 3.2%만이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종교와 비교해서는 어떻겠습니까? 35.2%가 가톨릭, 31.1%가 불교, 그리고 개신교는 18.0%만이 신뢰를 보냈습니다. 특히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69명 중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불과 8.7%에 머물렀습니다. 또 교회의 사회봉사 가운데 교회가 신뢰 받기 위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활동으로 봉사 및 구제활동(47.6%), 윤리와 도덕실천운동(29.1%),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12.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기독신문 2008년 11월 19일자, 7면에서 인용). 이 여론조사는 다행히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에서 조사된 데이터입니다. 특히 개신교회의 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는 항목은 이번 서해안 사태에서 보여준 한국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만일 그것마저 없이 지난 해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 당시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긍정적인 응답이 현저히 줄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데이터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연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주제발표를 한 내용으로 95% 신뢰수준에서오차범위가 3.1%인 비교적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서해안 사태 당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필자인 성백걸 교수가 쓴 생태백서가 좋은 자료가 되어 한국교회에 요긴한 자료로 쓰이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필자의 생태백서에 대한 논찬을 마칩니다. 필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이 귀중한 일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한국교회봉사단에 논찬자로서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발 제_서해안 사태의 생태신학적 이해

생태적 회심과 창조세계의 회복

전 현 식 교수 (연세대 신과대학)

1. 들어가는 말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일 년이 되었다. 시꺼먼 원유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태안 앞바다의 검은 눈물, 삶의 터전을 잃은 태안 주민들의 애타는 눈물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고, 서해안 살리기 생명운동으로 이어졌다. 죽어가는 태안반도를 살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백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물결은 검은 재앙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키는 세계 환경사에 길이 남을 감동과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 냈다. 수많은 생명들 중에서 인간생명의 고귀함은 고통 받는 다른 생명에 대한 긍휼과 사랑일 것이다. 서해의 죽음을 서해의 생명으로, 서해의 눈물을 서해의 희망으로 바꾼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사랑을 실천한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필자는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1주년을 맞아 “생태적 회심과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와 한국교회의 서해안 살리기 생명운동에 드러난 생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의 선교방향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살리는 생명선교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창조세계의 위기와 한반도

1) 창조세계 위기의 최전방에 선 한반도

현재 인류는 창조세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창조세계 위기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서로 뒤얽혀 있는 인류의 총체적 위기를 말한다. 즉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재앙과 세계화의 경제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복합적인 현상을 말한다. 경제 전문가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과 세계화 경제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21세기 지구적 위기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데 그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1)]

우선 창조세계안의 환경문제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한반도는 환경재앙에 가장 취약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북반부에 위치한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의 최전방에 서있다. 그 한 예가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20세기에 지구평균온도가 섭씨 0.6도 상승했는데, 한반도는 북반부에 위치해 있는 이유로 섭씨 1.6도 상승했다. 한반도의 평균온도가 지구 평균온도 보다 약 2.5배 더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가 지구온난화로부터 오는 각종 피해를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미 한반도는 기후패턴이 아열대 현상으로 바뀌면서 장마예보를 중단했으며, 작물지도가 변하고, 매년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한반도 여름의 살인적 더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

1) "세계 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창조세계 위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2007년 1월 24일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포럼(WEF) 연차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경제 지도자들은 "지구촌 힘의 균형을 바꾸는 요인"을 주제로 5일 간의 토론을 벌였고,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론을 집약했다. 참석자들에게 첫째, 향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들은 무엇이며, 둘째 이로 인한 세계변화에 대해 가장 준비 안 된 요소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참석자들의 38%가 기후변화, 32.9%가 신흥시장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 질문에 참석자들의 55.1%가 기후변화, 12.2%가 심화하는 불평등이라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와 신흥시장 그리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이다. 여기서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를 말하며, 신흥시장 및 불평등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지배체제로 집약되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1년 100여개 국가의 2000여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해 5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의 연구결과 발표는 지구온난화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적 재난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지구 생명공동체의 암울한 미래(해수면 상승, 태풍, 홍수와 가뭄, 기근으로 인한 질병의 만연, 멸종, 환경난민, 전쟁과 같은 인류문명의 종언)와 이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기존 에너지정책과 인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21세기에 지구평균 온도가 섭씨 5.8도 올라 해수면이 86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는 해수면이 65cm정도 상승하면 침수되기 시작할 정도로 해수면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창조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문제는 어떤가? 미국의 4번째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뒤 흔들고 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미국 실물경제시장은 진정되지 않고 더욱 불안하게 움직이며, 그 여파는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약 10년전 IMF 때 못지 않게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경제에 기초하여 무한한 성장과 개발을 지향해온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의 사실상 종언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경제지배체제로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지구적 재앙을 일으킨다고 경고해 왔다.[3] 그 우려와 경고가 좀 더 일찍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또한 세계기아 현상은 세계화 안에서 발생하는 식량생산과 분배의 불공평, 그리고 제 1세계의 육식과 소비의 급격한 팽창에 기인한다. 수출을 위한 육축의 대량생산은 산림파괴로 인한 사막화, 물 오염 및 부족, 세계기아의 주요원인이 된다.[4]

2)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의 성격

2007년 12월 7일 태안 해상국립공원 해상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의 대형 크레인 바지선이 충돌하여 약 15,000톤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그 일대 해양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환경 대재앙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인근 해양생태계와 주민들의 생계에 끼친 연간 피해액은 약 3900억에 달했다.

필자는 『생태백서: 서해의 눈물 서해의 희망』을 기초로 태안반도 환경재앙의 성격을 예고된 인재, 생태정의, 그리고 예시적 사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이 사고는 예고된

3) 환경정책 전문가인 레스터 브라운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와 세계화 경제시스템 안에서 중국, 인도 및 다른 개발도상국이 미국식 성장과 번영의 꿈을 따라갈 경우 2031년이 되면 지구자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서구식 경제개발은 실현될 수 없고 결국 인류문명은 쇠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세계인구의 20%가 지구자원의 85%을 독점하고, 세계 최고부자 3명의 부가 가난한 48개국의 부를 능가하며, 세계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로, 세계인구의 20%인 12억은 하루 1달로 연명하며 살아간다. 제1세계는 제3세계보다 육류는 52배, 종이는 115배, 에너지는 35배를 더 사용한다. 세계인구의 5%인 미국이 재생 불가능한 세계 에너지의 1/3을, 지구자원의 1/4을 독점하고, 미국인은 제3세계보다 에너지를 300배 더 사용한다.

인재였다. 예고된 재난의 근원은 두 대기업의 생태적 무관심에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기상악화 예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바지선의 출항을 무리하게 결정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수송비와 선체 개조비를 줄이기 위해 유조선을 단일선체로 고집했고, 그것도 정박지가 아닌 곳에 불법정박하고 있었다. 두 대기업의 기업이기주의와 안전불감증은 환경파괴의 잠행적 특성과 이로 인한 생태적 무관심으로부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환경파괴는 잠행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태적 무관심에 빠진다. 태안반도 환경대재앙에서 잘 드러나듯이, 두 기업의 예고된 환경파괴의 과정은 보이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발생할 환경재앙에 무관심했지만, 충돌의 결과는 파국적이었다.

둘째, 태안반도 환경재앙은 생태정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생태정의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을 인식하면서,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생존과 정의의 문제를 상호 관계적으로 바라본다. 이번 재앙은 환경파괴의 부정의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태안반도 생태계를 가장 많이 파괴한 두 기업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재앙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가장 적게 입지만, 오히려 태안반도의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살아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의 해양 재난관리 시스템의 취약성(허술한 방제훈련, 초기대응의 미진, 미흡한 방제대책,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유화제 살포 및 고온고압세척등)은 그 재난을 확산시켰다. 2007년 12월 17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는 태안반도 환경재앙을 생태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환경재앙을 유발시킨 두 기업과 재난관리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정부가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과 생계대책, 그리고 피해복구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셋째,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는 한반도가 직면할 창조세계의 미래적 재앙을 보여주는 한 예시적 사건이다. 시커먼 원유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죽어가던 야생조류의 처절한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우리는 야생 조류의 신음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연의 비극이 결국 우리 자신의 비극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환경재앙의 교훈은 현대 산업문명이 약속한 무한한 성장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이런 허황된 유토피

아적 신화를 실현하려는 인간중심적인 소비중심적 가치와 삶에 대한 경종이다. 창조세계의 실제적 종말을 예고하는 환경재앙 앞에서 기독교 신학과 교회는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삶의 변화에 어떤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3. 태안 앞바다 환경재앙과 한국교회의 생명선교에 대한 생태신학적 이해

필자는 생태계 위기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의 근원은 이런 지배착취 체제를 정당화하는 종교 문화적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다시 말해, 생태계 위기는 개선된 과학 기술 및 환경정책이나 자원의 배급이나 인구통제에 의해 개선, 해결될 수 있는 것 이전에, 그 위기를 만들어낸 근원적 뿌리는 자연에 대한 태도 및 관계를 결정짓는 인간의 신념과 가치체계, 즉 현대인의 영성의 위기다. 필자는 생태계 위기의 근원을 위계적 이원론 (정신/몸, 남성/여성, 인간/자연, 역사/자연, 하나님/창조세계, 부자/가난한 자, 제1세계/제3세계)으로 보면서, 이런 지배적 파괴적 관계를 상호관계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생태적 영성을 성서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1) 생태적 회심과 창조세계의 선성

(1) 한국교회의 생태적 회심

몇몇 문명비평가 및 종교학자들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성서와 기독교에 돌린다. 그렇다면 성서와 기독교는 현재 생태계 위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문명비평가들은 생태계 위기의 정신적 뿌리를 기독교의 초월적 영성 안에서 발견한다. 이들이 비판하는 기독교의 초월적 영성은 세 가지, 즉 인간중심주의, 정신/몸의 이원론, 그리고 초월적 유신론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간중심주의를 허용한다.(창 1:26-29, 9:1-3, 시8:5-8)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모델은 창조세계를 인간구원 드라마의 배경이나 인간이익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둘째, 기독교는 정신과 몸의 이원론에 기초하여 정신과 관련된 영적영역을 높이고 몸과 관련된 물질영역을 무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영혼/몸의 이원론에 기초한 기독교의 초월적 영성은 본질적 인간을 초월적 영혼으로 보며, 따라서 구원의 핵심은 개인영혼에 집중된다. 이것은 인간과 피조물사이의

날카로운 구분을 야기 시키고, 결국 인간이외의 자연세계를 평가절하 한다. 셋째, 기독교의 초월적 유신론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세계를 벗어난 초월적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 결과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박탈하여 자연을 비신성내지 세속화시켰다. 초월적 유신론은 근대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 및 자연의 세속화의 종교적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기독교 초월적 영성의 세 가지 반 생태학적 특성들(인간중심주의, 정신/몸의 이원론 및 초월적 유신론)은 인간/자연, 정신/몸, 하나님/세계의 이원론적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서 및 기독교의 초월적 영성이 창조세계를 지배착취 할 수 있는 인간중심적 이데올로기를 근대과학 및 산업문명에 제공해 왔다는 문명비판가들의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안 환경재앙의 현장에서 얻은 가장 귀한 체험은 "생태적 회심"이었다. 바로 "생태적 회심"이란 문명비평가들이 비판하는 기독교 초월적 영성의 인간중심적 삶에서 창조세계에 근거한 생태적 청지기적 삶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재성 목사(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는 현장 봉사일지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생태적 회심"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실제 방제인력의 50%가 기독교 신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몸을 씻듯 바위를 닦아내고 있다.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며 '모두가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이 생태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라고 말하여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본다. 서해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국교회여, 생태적 회심을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시대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강렬한 메시지다. 이제 서해안은 말한다. 저 거센 파도가 기름투성이인 바위를 때리며 흰 거품을 물고 말한다. '생명은 하나다. 생태계도 생명이다. 생태계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이다.' 이 또렷한 소리를 듣고 한국교회는 생태적 회심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지구 생태계를 돌 볼 사명자로 나서야 한다."[5]

기독교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몸에 깊숙이 스며든 탐욕의 죄를 씻어내듯 바위에

5) 양재성, "생태적 회심, 서해안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 2007. 12. 27, 성백걸, 『서해의 눈물 서해의 희망』 에서 재인용.

묻은 기름 찌꺼기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었다. 앞에서 지적한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위원회(IPCC)가 지적하듯이, 지구적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다. 인간의 이기적 삶의 방식은 자신의 충만한 자유의 삶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창조세계의 지구적 재앙을 가져온다. 생태적 회개는 창조세계와 그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인간이익 및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지배해온 것에 대한 인간의 뉘우침이다. 생태적 회심은 창조세계를 인간구원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보는 개인적 중심적 삶에서 창조세계에 뿌리내린 공동체적 사고 및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2) 창조세계의 선함과 내재적 가치

한국교회의 생태적 회개는 창조세계의 선함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기인한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환경 선언문"(08. 3. 23 부활절 연합 예배시 발표)에서 생태적 회심을 창조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회개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 손수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던 이 세상은 우리를 포함한 인간의 타락과 탐욕으로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 죄책 고백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생태적 회심의 삶을 다짐한다."

기독교의 초월적 영성은 성서 안에 있기 보다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에 기인한다. 오히려 성서는 초월적 이원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훼손된 창조세계를 회복 보존 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자원 및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 성서는 창조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확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만 축복해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축복하셨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선한창조(good creation), 창조세계의 선성을 확인한다. 창세기 1장은 "창조세계는 좋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매일의 창조 작업이 완성될 때 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선한 것으로 7번 씩이나 축복하신다. 그리고 육일 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신다.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양하게 상호의존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둘째, “창조세계가 좋다”는 창조세계의 선성의 확인은 모든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이익과 목적에 관계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만물의 내재적 가치의 인정은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 및 공리주의적 견해(유용성 및 인간이익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견해)의 한계를 잘 지적해 준다.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는 우리가 피조물을 인식이나 설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물질적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생명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눔을 의미한다.

2) 하나님의 계안 안에 있는 인간과 창조세계

(1) 청지기적 책임

한국교회 환경선언문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를 청기지로 이해하며 창조세계의 선성을 회복하기 위한 청기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적인 영성 함양에 진력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성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청지기적 책임을 요구한다. 여러 학자들은 생태계 위기의 성서적 근원을 창1:28[6]절에서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지배를 정당화해 온 것은 편협한 인간중심적 해석 때문이다.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는 성서 안에 있기 보다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에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dominion)개념은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stewardship), 즉 대리권 내지는 사용권을 의미한다. 이런

6)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동산지기로 부르시는 구절(창2:8, 2:15)[7]에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돌보라는 청지기적 책임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특권은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위임된 청지기적 책임을 의미한다. 자연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청지기직의 남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폭풍과 가뭄을 자신의 교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신앙적 해석은 지금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생태적 의미를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한 반성으로, 회개와 사랑의 능력,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회개와 타자(특히 가난한 이웃과 다른 생명)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생명의 힘)에 근거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인간의 청지기적 삶에 대한 자연의 반응은 바로 윤리적 표지이다. 예들 들어, 태안반도 환경재앙을 인간의 청지기적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신앙이다.

(2)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인격적 관계

그러나 몇몇 종교학자나 생태학자들은 기독교의 청지기적 모델이 여전히 인간을 자연의 통치자로 보는 인간중심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서는 인간을 자연의 부분이 아니라, 자연 밖에 혹은 자연 위에 둔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적 위치는 자연의 거룩함과 자연 안에 신의 직접적 임재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토착전통이나 타종교 전통들 안에서 생태학적 영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성서과 기독교 전통 안에는 창조세계의 거룩함과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을 말하는 생태학적 영성과 윤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성서적 세계관은 창조와 구원, 자연과 역사, 자연과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과 역사의 이원론은 19세기 서구 사상가들의 성서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의 결과이다.

---

7) 창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들은 역사를 하나님이 현존하는 인간의 참된 자유의 영역으로 보았고, 역사보다 열등한 자연은 개인구원과 자유를 성취하기 위하여 극복되어야 하는 필연의 영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역사(시간)와 자연(공간)안에 현존하는 살아계신 실재다. 성서는 창조를 구원과 역사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인간구원의 배경 및 도구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상태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시 136:6-15)

하나님은 인간의 매개 없이 창조세계와 직접 관계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축복하시며,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응답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사역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창1:1-31), 동시에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즐거움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소나기 속에 임재 하시어 밭에 물을 대어 그 땅을 축복하시며, 들의 초장과 작은 산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 65:9-13)

하나님과 창조세계와의 상호 인격적 관계는 자연이 영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한다. 창조세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피조물의 공동체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약 안에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 안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창9:8-10)[8]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이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교회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을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가 태안반도 환경재앙을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적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및 심판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자를 인간중심적 청지기적 책임이라면, 후자를 생태적 청지기적 책임이라고 부르고 싶다. 전자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 및 관리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돌봄 및 양육, 봉사에 초점을 둔다. 성서에서 증언하는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직접적 관계는 인간이 생태적 청지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

8) 하나님의 첫 번째 계약은 노아와 그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맺은 것이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창조세계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창9:8-10)

3)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몸적 현존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세계와 맺으신 계약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세계 사이의 상호 인격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필자는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에 대한 생태적 재해석을 위해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강조하는 성육신 신앙에 대해 알아본다. 성육신 신앙 안에 드러난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생태적 청지기인 우리가 훼손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성육신과 기독론

요 1:14절[9]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준다. 성육신(成肉身)(incarnation)이란 체현(embodiment), 즉 육신을 입었다, 혹은 육신이 되었다(being made flesh)는 의미이다. 우리도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된 존재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몸적 존재,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몸으로 된 모든 피조물은 성육신된 존재이다. 나의 몸, 야생조류의 몸, 한반도의 몸, 창조세계의 몸은 성육신된 존재이다.

그런데 요1:14절 말씀의 중요성은 성육신의 기독론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있다. 즉 "하나님이 몸이 되셨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관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요3:16)

여기서 성육신의 기독론적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제시해온 하나님과 세계의 네 가지 관계모델을 살펴보자. 첫째, 이신론적 모델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시계공과 시계의 관계로 이해한다. 이신론적 모델은 하나님을 정신, 세계를 죽은 물질(기계)로 보는 정신과 몸의 이원론, 하나님과 세계를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하는 주객이원론을 전제한다. 이신론적 하나님은 비인격적이므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대화적 모델은 하나님과

9)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계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하지만, 세계를 오직 인간으로만 봄으로써,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로 축소시킨다. 따라서 이 모델은 개인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창조세계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없다.

셋째, 군주적 모델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왕과 백성사이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이해한다. 이 모델은 이신론적 모델의 비인격주의와 대화적 모델의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나 자신의 백성만을 다스리는 왕의 모델은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지 못한다. 넷째, 대리적 모델은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자, 구원자 및 유지자로 이해하는 삼위 일체적 모델을 말한다. 이 모델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잘 드러내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 대리인으로 묘사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세계에 임재 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을 드러내는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계의 네 가지 모델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내재보다는 초월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능력, 하나님의 돌봄보다는 통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신론적 모델, 대화적 모델, 군주적 모델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창조세계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네 번째 모델인 대리적 모델은 하나님과 창조세계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구체적 사랑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계의 어떤 모델이 현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모델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과 참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성육신 신앙에 근거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을 알아본다. 하나님이 한반도의 이 땅에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몸적 존재인 우리(모든 피조물)와 함께 관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관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중 하나인 성자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기독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성육신의 기독론적 의미가 한반도의 생태계 위기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고 본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기독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던 중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선생님을 세례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 중의 한 분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3-16)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에 기초해 있다.

2. 그리스도적 현존과 활동의 체현

하나님이 인간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성육신 신앙은 우리에게 헌신적 사랑, 즉 상호 관계적, 참여적, 공동체적 사랑을 요구한다.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합일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적 현존과 활동(God's Christic presence and activity)을 체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구원의 활동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온 몸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체현(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메시지와 삶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이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 안에 몸이 되신 하나님, 즉 성육신 신앙의 체현을 뜻한다.

성육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체험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순수의식인 내가 관념 속에서 추상적인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다.

3. 성육신 신앙의 생태적 재해석

성육신 신앙의 생태적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확인한다. 즉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성육신 신앙의 생태적 이해는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이원론과 범신론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영)과 창조세계(몸)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영인 동시에 몸이다. 세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세계 안에 현존하지만, 세계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창조세계의 관계는 마치 나와 나의 몸과의 관계와 같다. 즉 나의 몸이 나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몸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의 몸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세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 안에 임재하여 자신의 몸인 창조세계를 돌보고 생명의 힘을 부여하신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세상인 자신의 몸의 생명의 원리이므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몸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한 유기적인 생명이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이다.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고백하는 성육신 신앙은 한반도의 지구적 위기의 현장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체현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한다.

4. 한국교회의 생명선교를 향하여

이번 태안반도 환경재앙이 발생하자 한국교회는 신음하는 태안반도에 직접 찾아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창조세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향해야할 생명선교의 핵심이다.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초교파적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출범한 한국교회봉사단은 "섬김과 나눔의 봉사로"라는 주제로 기독교 비판을 섬김과 나눔으로 수용하자고 호소하면서,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지향해야할 선교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김종생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사무처장)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의미를 태안주민에 이웃이 된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을 통한 한국교회들의

초교파적 교회연합봉사운동, 생태적 회심의 계기, 교회,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상호협력의 기회로 들고 있다.

태안반도 환경재앙에 직면하여 한국교회가 보여준 생명선교의 핵심과 방향은 앞으로 신음하는 한반도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돌보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한국교회 생명선교의 내용을 생태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회의 생명선교는 생태적 회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생태적 회심은 인간의 생태적 무관심, 개인적 탐욕 및 사회적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고통 받고 있음을 고백[10]하고,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중심적 파괴적 삶을 회개한다. 한국교회는 창조세계 중 어떤 부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어떤 부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형태의 위계적 이원론(정신/물질, 하나님/세계, 인간/자연, 남성/여성, 부자/가난한자, 백인/흑인, 제1세계/제3세계)을 거부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런 지배적 파괴적 관계를 죄로 고백하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파괴(청지기적 남용)을 근원적 죄로 회개한다.

둘째, 한국교회의 생명선교는 생태적 청지기를 강조한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생태적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생태적 청지기적 책임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가 포함되는 성서에 근거해 있다. 다시 말해,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관리나 통치가 아니라, 돌봄과 양육과 섬김이다. 창조세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한 교회는 선교의 범위를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 양육 및 보존하는데 까지 확장해야 한다.

셋째, 생명선교는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고백한다.

한국교회는 성육신(몸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다)신앙을 생태적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몸 안에 직접적으로 현존한다. 생명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몸적 현존과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창조세계"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창조세계"는 이원론과

10) 모든 몸적 존재가 신음하고 있다. 개인의 몸은 탐욕과 질병으로 병들어 있고, 한반도의 몸은 파괴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창조세계안의 이런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괴로워하신다. 롬 8:22-23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범신론을 거부하며, 하나님(영)과 창조세계(몸)의 유기적 상호관계성을 강조한다.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창조세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인 창조세계 안에 분리될 수 없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여 그 몸에 생명력을 주신다.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고백하는 생명선교는 한반도의 생태계 위기의 현장에서 모든 생명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체현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넷째, 생명선교는 생명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회복한다.

창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몸적 피조물은 상호 관계적, 참여적, 공동체적 존재이다. 유기적 몸인 인간은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인 동시에 타자에 의해 보이는 대상이다.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할 때, 내가 주체로서 만지는 손이 타자에 의해 만져지는 대상임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나와 너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관계적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이 세상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호 관계적, 참여적, 공동체적 삶의 절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개인적, 경쟁적, 지배적이다. 우리의 경쟁적 현실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할 성육신된 존재로서의 상호 관계적 삶을 방해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이런 억압적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셨다. 눅19:41-44에는 예루살렘성을 눈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삶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한반도의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모든 생명의 고통과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창조세계를 예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긍휼과 사랑은 잘못된 현실에 대한 낭만적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잘못된 현실에 대해 도전하는 저항의 영성이 된다.

다섯째, 생명선교는 생태정의의 영성과 윤리를 요구한다.

생태정의는 생태문제와 사회문제, 생태보존과 경제개발, 생존(생태)과 정의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간사이의 정의로운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의 불가분성에 기초하여 창조세계의 건강 없이 인간사회의 정의는 어려우며, 사회정의 없이 생태계의 보존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성서의 안식일 법전(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사람과 동물의 휴식, 땅의 회복, 가난한 자와 야생동물의 보호, 땅과 노예의 해방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창조세계 사이의 파괴적 관계를 상호 유기적 관계로 주기적으로 회복시키는 생태정의의 영성 및 윤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오 지구 선언도 생태정의의 모델을 잘 제시해 준다. 리오선언은 생태(생

존)과 정의(개발)의 관계와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 선언은 자연과 인간의 공동파멸을 가속화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지구의 생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선언은 지구를 "유한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면서,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했다. 이 선언은 환경보존(지구의 생존권)과 경제개발(인간의 행복권)의 두 상충된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적 기준으로 생태정의를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차적 목표를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두었다. 개발과 보존에는 개발이익과 환경훼손, 환경보존과 개발중지라는 이익과 비용이 동시에 수반된다. 생태정의는 개발과 보존의 혜택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는 분배정의를 통하여 지구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런 정의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인류는 공동의 비극을 벗어날 수 없다.

생태정의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세계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생태계 위기의 현장에서 인간의 청지기적 남용(하나님과의 계약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및 심판의 소리[11]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5. 나오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하고, 인간의 자기의식과 반성의식을 다른 생명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지배적 특권으로 잘못 사용해 왔다. 우리가 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기술과 힘이 있음을 상기할 때, 창조세계를 양육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의 청지지적 책임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생태적 회개 및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책임적으로 응답하느냐 파괴적 삶을 지속하느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 달려있다.

한반도의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세계에 대한 비관적 혹은 낙관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생명에 헌신적 사랑과 참여이다. 환경정책 전문가인 레스터 브라운이 제시하듯이, 가장 시급한 생태계 치유와

11) 시편 107:33-34;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지구적 가난을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1610억달러)이 년간 세계국방비(9750억 달러)의 1/6, 미국 국방비(4920억 달러)의 1/3이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창조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과 희망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희망을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 보여주셨다.

>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사35:1-2)

태안반도 원유유출사고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시커먼 원유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는 생명들의 처절한 모습 안에서 인간중심적 파괴적 삶에서 생태적 청지기적 삶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이제 생태적 회심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생명선교(생태적 회심, 청지기적 책임, 하나님의 몸, 생명에 대한 사랑, 생태정의)를 통해 1년전 죽음의 바다였던 태안반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며, 우리와 우리 자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길 기원한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당부하셨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국교회의 생명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땅위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끝으로 이사야서 기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읽으며 이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11:9)

논 고_ 교회연합과 일치를 이룬 서해안 자원봉사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자

손 인 웅 목사 (덕수교회 담임목사)

1.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본래 하나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의(one), 거룩하고(holy),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apostolic)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백은 교회의 단일성(單一性)과 거룩성(聖性), 보편성(普遍性)과 사도성(使徒性)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교회의 단일성(單一性)은 제도나 조직, 그리고 교리의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본질상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이며, 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인데,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는 말씀에 기초하여 바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4-7)는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인 교회를 위해 교회의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예배와 신학과 교회질서 그리고 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이룰 수 있다. 교회의 단일성을 저해하는 것은 협조관계가 아닌 깊은 대립관계로서의 공존관계이며, 이러한 배타적 대립관계는 분열을 조장하는 기능을 한다. 실로 가장 큰 불행은 1054년 東西敎會의 분열과 1517년 서방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분열이라 할 것이다.

2. 주께서 주신 교회는 본래 하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분열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이 교리적 문제나 신학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같은 신조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분열한 역사를 보면서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 분열의 사회적 배경」 이라는 저서에서 교회 분열의 원인을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 지역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인종적 배경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니버는 교회의 분열은 윤리적 패배라고 선언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면서도 교회 자체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원형과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그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헌신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방하는 그리스도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투적이요, 배타적이며, 독선적이고, 편협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아득한 옛날 중동지방 유목민의 전투적이고 보복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태생한 유대인들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그와 함께 "거룩한 전쟁"(Holy War)개념과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세계 정복과 통치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로마교회가 황제들과 손을 잡고 제국주의적 선교방법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론을 합리화함으로써 전투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부각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교회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초기 교회로부터 기독교에 도전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정통 교리를 만들어서 정통 교회에 어긋나는 이단들을 정리하고 화형까지 시키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났다. 이러한 전통이 어느 정도 체질화 되면서 수많은 교리논쟁을 해 왔고 호교론자들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배타와 분열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가장 큰 분열의 역사는 AD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리적 문제(Filioque)이었지만, 사실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와 서방의 로마 주교의 권력 투쟁이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서방의 라틴어 문화권과 동방의 헬라어 문화권의 충돌이었고, 지리적, 인종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커다란 교회의 분열의 역사는 1517년에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누어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좋은 뜻으로 개혁운동을 시작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개혁운동의 후유증으로 교회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할 수는 없다. 복음을 수호하려는 종교개혁자들은 그 동기와 개혁의 정신이 순수하고 정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종교개혁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가톨릭교회 안에서 개혁자들을 수용하고 자체 갱신을 계속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막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가톨릭교회의 죄는 복음을 약화 내지 무력화 시킨 것이요, 개신교회의 죄는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인류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가장 우려하는 일은 서방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종교간 갈등문제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사명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화해가 없고, 종교 간의 화해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없다(한스 큉)"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각 종교는 자체의 교파들끼리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 불교, 그리고 기독교는 모두가 자체 분열로 인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평화가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교회는 교회분열에 대해 통렬히 회개하고, 교회의 연합일치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결단을 해야만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200여 개가 넘는 교파, 교단들로 분열된 처지인지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선교의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1953년 이후, 장로교단의 분열을 필두로 분열의 역사가 불행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여 핵분열처럼 분열을 거듭해왔다. 신학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이 교권쟁탈문제나 이권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9년 군사정부시대를 지내오면서 이념갈등이 심화된 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결성하여 보수를 표방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연합운동을 시작함으로 한국교회는 KNCC와 한기총이라는 두 연합기관의 보혁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교회의 연합운동은 초기 한국교회 시절부터 노력해 온 과제이지만, 미국의 교파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다. 교회연합일치운동이 어려운 것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신학이나 교리나 의식이나 제도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의 차이가 만드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지나친 교파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교권이나 이권, 지연, 학연 같은 아주 세속적인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다. 교파나 신학이나 교회 제도, 의식 같은 것은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문화적 산물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운동을 화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인식을 심각하게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기윤실에서 실시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톨릭교회(35.2%), 불교(31.1%) 다음으로 기독교가 가장 낮은 18%의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선교의 장애요소가 다른 두 종교에 비해 더욱 많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5.5%).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 타종교에 대한 관용(25.8%), 사회봉사(11.9%), 재정사용 투명화(11.5%) 등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은 봉사구제활동(47.6%), 윤리도덕 실천운동(29.1%),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12.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교회가 연합된 힘을 모아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국내외적인 봉사활동은 한국 교회의 연합일치 운동을 이루는 실제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의 보수와 진보는 함께 금모으기 운동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각 교파, 교단들 안에는 교회성장의 둔화현상에 위기의식을 가진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갱신운동을 강도 높게 펼치면서 각각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던 중에 1998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결성되었고, 이어서 2001년에는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KNCC와 한기총의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부활절연합예배를 양 기관이 주관하여 함께 드리기 시작하였다. 2005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는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열렸으며, 2007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는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열려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통회하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데 가속도를 붙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교회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아프간 사태로 기독교가 심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2007년 12월 7일에 세계 역사상 초유의 원유유출사고가 서해안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12월 14일 기독교 지도자 50여명이 긴급하게 모였다. 여기에는 KNCC 총무를 비롯한 한기총 총무, 교단장협의회 사무총장, 한목협 대표회장, CBS사장, CTS 사장, 극동방송 사장, 국민일보 사장, 각 사회복지 관계 NGO대표들과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원침례교회, 강북제일교회, 연동교회 등 50여 교회 담임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회집하여 긴급으로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 봉사단을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소집자로 김삼환 목사를, 대표로 오정현 목사를 단장으로 추대하였다. 12월 17일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1,000여명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개목항에서 기름방재 봉사활동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앞에 봉사 동참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바로 방제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무실과 현장캠프를 설치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와 세계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2월 17일에 교단장협의회에서 범교단적 참여결의, 12월 29일에는 태안현장 11개 캠프 책임자 협의체 구성, 2008년 1월 11일에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계, 정계, 정부, 학계, 사회단체의 지도자와

성도들 1,000여명이 함께 모여서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 봉사단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교회, 개척교회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여 2008년 3월 25일 방제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전국교회, 학교, 기관단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체 봉사자로 80만 명이 참여하였다. 이 때 기독교가 소요한 전체 비용은 154억 원에 달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기름방제 작업뿐만 아니라 무료진료, 아동보호센터, 환경신학포럼, 주민 위로공연, UN과 WCC 세계 환경단체에 보고할 생태백서발간 등 생태마을 조성, 기념관 건립, 박물관 건립 등의 후속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2008년 5월 2일 미얀마 양곤 사이 콜론 나르기스 피해 복구지원,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지원, 북한 식량지원, 논현동 고시원 화재 사망자 중국동포 장례 및 지원 등 긴급한 재해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이 한국 교회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세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한국 교회의 연합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한 것이었다.

1. 한국인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힘과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자원봉사를 통해 꽃을 피웠다고 할 것이다.
2.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자극과 함께 적극적으로 응전하려는 분위기가 결집되어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순수하고도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의 결실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교리와 신학은 교회를 나누어도 봉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연합운동의 진리가 실증된 것이다.
5. 그동안 기구적으로나 제도적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 오던 중 그것은 기득권자들 때문에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회의 본질과 영적인 일치를 추구하면서 예배나 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며 연합운동을 전개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6. ‘한국 교회 봉사단’은 한국 교회의 연합일치의 가능성을 실증하였고, 앞으로 그 순수성, 자발성, 자율성, 자주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 조직성, 창의성 같은 자원봉사의 정신과 원리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 봉사단의 미래는 밝을 것이요, 나아가서 한기총과 KNCC의 기구적 통합을 넘어서 실제적인 한국교회의 연합을 가능케 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이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는 리더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 봉사단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헌신적인 봉사자이기에 상당히 높은 성공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논 고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박 종 삼 회장 (월드비젼)

I. 들어가는 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20)

1.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인간사가 나타났다

서해안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바다가 오랫동안 신음했고 지금까지도 바닷가의 생태계가 소생해 볼려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상실한 주민들의 절망에 가득 찬 눈물과 격분의 아우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지 일년이 되었다. 우리는 그 날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또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된다. 예방될 수 있었던 부주의의 사고가 너무나 큰 재앙을 불러 일으켰고, 너무나 뼈저리게 아픈 상처를 해안가 주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사고주체인 상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를 향한 비난과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 국민이 해당기업을 향해 사회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해당기업은 기업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여 태안해안재앙의 확산을 막고 후속 오염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도 요구했다.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도 방제대책을 촉구했고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기를 요구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책임 있는 사회행동(Social Action)과 권리옹호표현(Advocacy)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책임 있는 시민사회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양심을 지켜오고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로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무책임한 사회(정부, 기업 등)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앙의 발생을 감시·예방하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책임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단체(예 NGOs 등)가 구호·개발·옹호(Relief, Development, Advocacy)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한 성숙한 한국국민의 인정어린(Compassionate) 생명의 손길이 서해안을 향해 달려갔다. 생활터전을 상실한 해안주민들의 눈물의 닦아주고, 기름덩어리로 숨통이 막혀 죽어가는 생태계를 소생시키고 기름을 제거하여 생명을 살리려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100만을 넘어 200만에 이르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 하에서 최선의 인간사가 일어나고 있었고(Best Things in the Worst Time), 무책임한 상황 하에서 책임성 있는 인간들(Responsible men in irresponsible society), 곧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목격할 수 있는 축복의 계가기 되기도 했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그들의 아름다운 생명의 손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믿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천국백성의 일원이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 서해안의 재해와 한국교회의 봉사

서해안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의 재난을 수습하고 서해안 주민들에게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며 서해안을 다시 살려야한다고 동참한 자원봉사자들 중 기독교단체, 교회, 교인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산되었다. 전체자원봉사 참여인원 중

기독교인의 수가 낮게는 30%, 높게는 60%로 추산하여 집계한 보고가 있는데 이런 통계의 의미가 기독교계나 교회, 내지 한국사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서해안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이래 한국교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을 구성하여 2007년 12월부터 3월까지 2,000여 교회에서 17만 명이 방재활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그 후에도 바다의 날인 5월 31일을 기하여 「서해안 주민위로와 소망의 날」행사에 주민과 자원봉사자 1만 여명이 참여하는 위로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서해안 에코 5대 프로젝트로 생태백서 제작, 조부모가정 등 결손가정 아동의 방과후지원 프로그램인 의항아동지원센터 운영, 생태자료관 및 교육관의 천리포 건축을 진행 중이고, 보령시 오천면생태섬마을 만들기, 주민통합을 위한 목회자 위기상담과 갈등해결사 훈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해안 원유유출 1주년을 계기 삼아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 」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내의 재해구호와 아픈 이웃을 찾아 몸으로 섬기기 위하여 「한국교회 봉사단」을 상설화하는 창립대회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후원하에 개최하게 되었다.

II. 서해안 원유유출에 대한 영적 분별(Spiritual Discernment)

>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9-11)

>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로마서 2:18)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정확한 형상과 문제의 원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서해안의 원유유출이 일어난 이래 이 엄청난 재앙의 실태, 원인, 영향, 긴급구호와 복구, 사회적·법적 책임소재 등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수의 질문과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별히 긴급구호, 사회환경 보존, 이재민의 사회복지대책, 기업과 사회제도의 사회윤리, 자원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차원에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전문적이며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의 관심을 이런 수많은 다양한 질문 중에서 어떤 종류(유형)의 질문이 원유유출재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하게 해주고, 그 원인을 올바로 파헤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원유유출을 중심으로 기독교공동체(예: 교회, 기독교기관 등)도 질문을 던졌고, 또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고, 재단과 사회와 함께 대처해 왔다. 성경적·신학적 고찰과 기도, 그리고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긴급구호현장에 배치하는 등 교회공동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괄목할만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공동체의 봉사활동이 일반사회에서 전개한 저원봉사활동과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며, 또한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적 특성을 나타내는 상이한 점들이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독교공동체의 자원(사회)봉사가 일반사회의 자원(사회)봉사(예: 사회복지, 사회사업 등)와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기독교공동체의 사회봉사이념이 성경과 봉사신학에 입각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재난, 빈곤 등 인간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기독교적 성찰의 결과에서 인간문제의 해결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의 질문이다.

오늘 우리는 인간과 환경을 파괴하는 자연 현상적,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 기독교공동체(교회, 기독교기관 등)가 책임성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부여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선물인 환경을 보존하는 사역을 목회적·예언자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공동체가 어떤 동기(motivation)와

능력(capacity), 그리고 봉사(service)의 기회를 창출한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봉사단」을 창립하면서 한국교회공동체가 던져야할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으며 그 많은 질문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질문을 세미나의 주제로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다. 물론 서해원유유출사고라는 역사적 재난을 목격하고 이에 대처하면서 구체적인 세가지 세미나 주제를 설정했는데, "첫째, 서해안 사태의 생태신학적 이해"의 발제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계와 사회제도 등의 문제를 성경적·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를 규정하느냐에 대한 고찰이라고 본다. 두 번째 발제는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에 관한 것으로, 인간과 환경의 문제, 곧 생명의 문제에 대해 교회공동체는 생명봉사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능력을 교인들에게 구비시키고, 이 사역을 목회자가 중요한 목회패러다임으로 삼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세 번째 발제 제목 "교회연합과 일치를 이룬 서해안 자원봉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능력을 갖춘 교회의 생명봉사청지기들을 어떻게 규합하여 조직화하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배치시켜 고통받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파송하고 배치할 수 있는 봉사기구와 제도를 교회공동체가 구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유유출의 재난을 중심으로 수많은 질문들은 자연주의적 세계관(Naturalistic World View)에 입각한 과학적, 전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교회공동체가 이런 질문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생리학, 생물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에서 도움을 얻어야 하고 또한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한 이런 자연주의적, 세속적 지식과 지혜로는 인간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기독교적 세계관"(Christian World View)의 기반 위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이해한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영적 분별"(Spiritual Discernment)을 통해서 "서해안 원유유출과 교회의 자원봉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공동체의 입장이다.

"한국교회봉사단"을 창립하면서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함께 고찰해야하는 것은 서해안 원유유출로 환경이 파괴되고, 해안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여 생명이 사망으로 변했듯이, 교회에도 세속적 생각과 탐욕이 원유유출과 같이 교회 안에 유출되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생명의 계명이 기름덩어리에 오염되고 가리워져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상실한 교회로 전락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영적 교훈을 준다고 본다. 인간의 죄,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생명을 소생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리셨다.

한국교회봉사단을 조직하기 전에, 생태신학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주신 생태계를 잘 보존하지 않고 남용해온데 대하여 회개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생명봉사"를 게을리 함 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데 대하여 회개운동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공동체가 회개운동을 전개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 개안가정교회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부흥을 일으켜주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는 백주년행사를 작년(2007) 일년 동안 거행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2008년에 교회봉사단을 확대 개편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힌 이웃에게 봉사를 게을리 한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모색은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제도,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신학 등 모든 면에서 "회개의 성찰" 로 영적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의 역동적 신앙유기체로 변화(transformation)시켜야 한다.

III.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

1. 현재 한국교회목회패러다임의 이해(문제의 제기)

1) 목회신학과 목회자의 신학교육배경

2) 봉사사역을 위한 교회의 조직(구조, 기능)
3) 성직자와 평신도의 선교기능
4) 목회와 지역사회, 사회문제
5) 목회와 가난한 이웃, 지역사회
6) 전도와 봉사의 균형있는 목회
7)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교인의 동기유발, 능력개발, 봉사기회 확장

2.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

1) 성경에 입각한 이웃봉사의 새로운 이해
2) 통전적 선교신학의 정립을 통한 전도와 봉사의 이해
3)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이웃사랑의 복음'
4)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5) '생명신학'을 중심으로 한 봉사신학의 정립
6) 평신도 신학과 교회의 봉사 사역
7) '생명안전망'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선교신학의 정립

3.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능력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향

1) 교회지도자와 평신도의 생명봉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체계적 제도 개발
2) 신학교육에서의 봉사신학, 봉사실천 교육/훈련의 제도화
3)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돕는 한국교회의 봉사능력 개발
4) 개교회와 집합교회의 사회봉사제도의 확립과 운영방안
5) 한국교회와 한국 및 국제구호·개발·옹호기관들과의 동역사역의 전략적 방법과 봉사능력의 개발
6)재난과 개발 및 옹호사업에 대한 능력개발

4.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기회확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

1)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2)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3) 전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4) 북한 및 해외봉사사역을 중심으로
5) 교회 간 교단 간 기독교기관과의 동역봉사를 중심으로

IV.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

1.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의 vision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2. '목회패러다임'의 vision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mission을 결단해야 한다.
3. Mission의 책임있는 실현을 위한 봉사목회(계획, 교육, 실천 등)의 구체적 목표(goals)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4. '봉사목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strategy)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이 공유해야 한다.
5.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는 '봉사목회'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봉사목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V. 나오는 말

한국교회봉사단을 창단하면서, 사회봉사단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의 '축복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참여가 절대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는 서해안 원유유출재난 현장에서 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봉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 개발은 오늘 우리가 창단하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성공적인 사역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교회봉사단의 활발한 봉사사역은 오늘날 무참하게 실추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심각한 세계적 경제의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신뢰감마저 상실한 채 사회에서 지탄받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물론 교회는 핍박을 받고 비난받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비난의 이유가 교인들,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교회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환란 속에서 새로운 vision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영국과 근대국가의 사회보장이론과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지리(Beveridge M. William 1897-1963)경은 '베버리지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영국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2차대전 이후 영국의 재건구상의 하나인 사회보장계획을 제안한 것이다. 균일액, 저생활비급여, 균일액의 보편화 등 행정의 일원화 등 여섯 개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부조와 임의보험이 이를 보충하는 체제로 구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이념에만 머물러 있던 사회보장에 구체적 내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사상에 획기적 의의를 가지며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경우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가지 자유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념으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정립하였는데 이는 1942년의 베버리지보고서 작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사실 사회보장의 개념의 유럽에서 생겨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미국의 긴급경

제보장(Economic Security)과의 합성어로 생겨났다.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으로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근대 사회 복지 이념이 우리 사회 속에 정착되었고, 1953년 한국 전쟁의 종식 속에 엄청난 수의 고아와 고부가 사경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통해서 "월드비전(World Vision, 옛 기독교 선명회)"라는 기독교 구호개발기구를 창설하였고, 이 국제기독교 구호기구가 지구촌 100여개 나라에서 3백여만 명에 달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결연하여 도울 수 있는 선교기구로 성장시켰다.

서해안 원유유출, 경제위기, 교회신뢰도 추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봉사단"을 창단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역을 위탁하려고 하신다. 한국교회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한국교회봉사단"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봉사단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그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봉사의 권능을 얻고 이 지구촌의 가난한 백성과 그들의 생태 환경을 지키는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함께 한국교회가 뭉쳐 모이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뭉쳐진 교회가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여 존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전된 발전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인 교회들이 함께 주님의 사역 곧 봉사에 동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사회봉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 "봉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창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교회봉사단 소개 및 사업경과보고

* **배경** :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하고 태안 현지에는 11개의 개신교 관련 현장캠프가 차려지고, 서울에서는 교계지도자들이 모여서해안 살리기에 온 교회가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2007년 12월 15일〈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을 긴급히 구성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몸으로 12월 17일 자원봉사를 시작하다가 2008년 1월 11일 연세대에서 성대하게 출범을 하였다.

* **사업보고**

1. 방제작업 자원봉사

기　　간 : 2007. 12. 17 ~ 2008. 3. 31
참여교회 : 2,000여교회와 기독단체
참여인원 : 170,000명
(태안군청에 신청한 180.000명과 태안지역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와 기타 등을 합치면 350,000명에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접수한 자원봉사자를 합하면 70만명이 되는데 이는 태안군이나 충청남도에서 추정하는 개신교 자원봉사는 전체 자원봉사의 80%에 해당한다는 통계에 가깝다.)
추정경비 : 200억원 소요
(1인당 자원봉사 경비 22,000원(교통비, 식사비,잡비 등)*700,000명

=154억원, 지역주민 위로경비 46억원(쌀과 라면과 각종 차, 기타)

2. 지역주민 위로사업

- 쌀과 라면 등 생필품 지원사업(예장 통합, 합동, 기감, 구세군 등)
- 무료진료봉사(10여개 기독병원)
- 태안군과 보령군의 가의도 외 10여 개 섬 무료진료봉사(도서(섬)의료선교회)
- 무료 이미용봉사(사랑의 교회 등 다수)
- 주택수리와 농기구수리 및 도배장판(해비타트, 온누리교회, 높은뜻숭의교회 등)
- 마을주민위로잔치(사랑의 교회, 아바선교회 등)

3. 주민연합위로잔치

행 사 명 : 다시서는 서해안 만들기-주민 위로와 소망의 날
일　　시 : 2008. 5. 31(바다의 날)
장　　소 : 만리포 해변과 천리포, 모항 일원
참석인원 : 10,000여명
주요행사 : 7개대학생방제활동, 무료진료(6개병원), 어린이와 청소년그림과 글짓기대회, 길거리사진전시회, 태안사랑장터, 지역주민식사접대, 여름이불 선물, 위로공연(출연진:박종호,유엔젤, 안치환, 윤수일밴드, 심수봉, 혜은이, 강승모)

4. 생태환경국제회의 유치

주　　최 :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CCA)
주　　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　　간 : 2008. 5. 14~17
장　　소 : 충남 대천 레그랜드 펀비치 호텔
참 석 자 : 국내외 에큐메니칼 관계자 40여명

5. 교회 여름수련회 태안유치 캠페인

태안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의 숙소 등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수련회 유치를 위한 수도권 교회들의 참여권유와 안내

6. 지역아동지원사업

사 업 명 : 의항아동지원센터
개 소 일 : 2008. 9. 1~현재
이용아동 : 20명
주요내용 : 숙제지도, 간식과 석식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장 소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의항교회내

7. 생태백서 발간사업

집 필 자 : 성백걸교수(백석대), 사진-안인철목사
출 판 사 : 풍류출판사 크라운판 450면
발 간 일 : 2008. 12. 4

8. 목회자 위기상담과 갈등해소 지도자 웍크숍

기 간 : 2008년 7월~10월중 / 3회
대 상 : 30여명의 피해지역교회 목회자
주 관 : 예장 통합 사회봉사부

9. 생태사료전시관 및 교육관 건축사업

취 지 : 각종 관련자료의 전시와 교육장
장 소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1리 천리포교회 부지
기 간 : 2008. 10 ~ 2009. 6
규 모 : 150평

10. 생태 섬마을 조성사업

취　지 : 피해를 입은 섬인 녹도에 무분별한 콘크리트개발로부터 천혜의 자연을 지키고 대안에너지 자립시설과 교육장을 조성하여 도시인의 생태적 쉼터와 재충전의 교육장을 주민과 함께 조성함

장　소 :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녹도

기　간 : 2008. 10 ~

동 역 자 : 마을주민회, 녹도감리교회, 보령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연세대CT연구소 등